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2018. 10. 04

CONTENTS

I. 서론

II. 가계 자산 특징

1. 가계 자산 평등도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2. 금융자산
3. 실물자산
4. 은퇴자산

III. 결론 및 시사점

심현정 선임연구원

02-3774-6984 | hesed_shj@miraeasset.com

< 요약 >

-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계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령화·저성장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고령화는 저성장, 저금리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구성이 고령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진단하고, 길어진 은퇴생활에 대비해 가계의 은퇴자산 축적·운용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4개국 가계 자산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성과 운용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관리 방향을 모색함.

- **각국 가계의 평균 자산 구성 비중 비교를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가계 총자산은 비교국 대비 적은 편이나 가계 간 자산 평등도는 비교적 양호함.
 - ② 다른 나라보다 가계 자산 구성과 운용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음.
 -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1.3%로 비교국 중 가장 높음.
 -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주택구입의 대기자금 성격인 전세보증금이 금융자산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③ 금융자산 운용은 안전자산 위주이며, 주식형 자산 투자에 소극적임.
 - 가계 금융자산 중 예금 및 저축성 보험이 70% 이상을 차지함.
 -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및 펀드 비중이 낮은 편이며, 안정지향적인 투자성향을 보임.
 - ④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한 편이며, 은퇴자산 구성과 운용방식이 비교국과 상이함.
 - 가계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 비중은 24.1%로 양적으로 부족함.
 - 은퇴자산이 퇴직연금보다는 생명보험 및 연금 위주로 구성되어 다른 나라와 상반됨.
 - 퇴직연금을 안정지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에 소홀함.

-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으로 성장성이 저하되어 있음. 또한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해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충분한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관리해야함.**

I. 서론

1. 가계 자산 구성 분석의 필요성

◎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가계가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령화·저성장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최근 5년간 연 3%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고령사회: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 2018년 고령인구비율은 14.3%
- 가계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가계 자산관리 방식을 점검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자산관리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을 선호해 왔으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 전망이 밝지 않고 부동산은 대체로 환금성과 유동성이 떨어져 필요시 적절히 처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성과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수명연장으로 은퇴 생활이 길어지는 만큼 은퇴자산이 충분히 축적되고 효과적인 운용·인출 전략이 수립·실행되어야 함. 이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자산 축적 수준과 구성, 운용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해 봄.

◎ 우리나라 가계 자산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가계 자산관리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해외 선진국 가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가계 자산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에서 보이는 특징이 보편적인지 혹은 특수적인지, 보편적인 특성이라면 그 경향의 강도가 어떠한지 평가 가능함.
- 본 리포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퇴직연금 등 은퇴소득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4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함. 이들 국가의 가계 자산 구성 및 운용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가계 자산관리 방향을 찾아봄.

2. 연구 방법

◎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4개국의 가계 대상 자산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각국 가계의 자산 규모 및 평균적인 자산 구성 비중을 도출함.

- 우리나라 가계 자료는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자료는 Badarinsa, Campbell & Ramadorai (2016)의 각국 수치를 인용함.

－ 활용된 국가 별 자료의 조사 시행주기와 공표 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시점이 지나더라도 자산 구성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미국 SCF 2010~2016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가계 자산 별 비중 순위가 거의 달라지지 않음.

〈 비교 대상 국내외 가계 자산 데이터 〉

국내 가계 자산 데이터 -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문

- 대상 : 전국 동읍면 거주 1인 이상 일반가구 10,000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별도)
- 조사 주기 및 방법 : 1년 주기 조사 실시, 면접 및 인터넷 조사

해외 국가 가계 자산 데이터

- ① 미국 : the US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2010년
- ② 영국 : the UK Wealth and Assets Survey(WAS) 2012년
- ③ 호주 : the Australian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Survey(HILDA) 2010년
- ④ 네덜란드 : the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HFCS) 2009년

※ 해외 가계 자산 분석 논문: Badarinsa, C., Campbell, J. Y., & Ramadorai, T. (2016). International comparative household finance.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111-144

● 특히 본 리포트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가계 별 자산 구성 비중 평균 방식’을 활용하여 각국의 실제적인 가계 자산 구성을 왜곡없이 파악·비교하고자 함.

－ ‘가계 별 자산 구성 비중 평균 방식’은 각 가계의 자산 비중을 평등하게 반영하므로, 자산 규모에 따른 왜곡없이 각국 가계의 실제 자산구성에 가까운 평균값 산출이 가능함.

※ 기존 대다수 연구는 ‘총량 기준 자산 구성 비중 산출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각 가계가 평균값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 극단값이 평균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 가계 자산 구성 비중 산출 방식〉

① 총량 기준 자산 구성 비중 산출 방식

- 전체 가계의 자산을 총합해 총자산과 각 자산 항목 총량을 비교해 자산 비중 산출
- 특징 : 원자료 없이도 산출 가능. 기존 연구에서 다수 활용돼 범용성 및 비교가능성 높음.
- 한계 : 가계 자산 규모에 따라 평균값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름. 일부 극단값이 평균에 영향을 주어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가계 별 자산 구성 비중 평균 방식

- 각 가계 별로 자산 비중을 구한 뒤 이 값을 평균해 자산 비중 산출
- 특징 : 개별 가계의 자산 구성이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돼 자산 구성의 평균 형태를 잘 보여줌.
- 한계 : 원자료가 있어야 산출가능

※ (사례) 산출 방식에 따른 가계 자산 구성 비중 차이

	A가계	B가계	C가계	
총자산	2억원	4억원	20억원	① 총량기준 자산구성 비중 73.1% 19억/26억*100=73.1%
부동산자산	1억원	2억원	16억원	② 가계 별 자산구성 비중 평균 60.0% (50+50+80)/3=60%
부동산 비중	50%	50%	80%	

II. 가계 자산 특징

1. 가계 자산 평등도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 국가 간 가계 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5개국 중 가장 작지만, 중앙값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30만 6천 달러로 미국(63만 5천 달러), 네덜란드(34만 8천 달러)보다 작아 5개국 중 최하위임.

※ 가계 자산을 각국 물가상승률과 시장환율을 적용해 2010년 미국달러로 환산해 비교함.

– 그러나 각국 중간 가계의 자산규모를 나타내는 중앙값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 중앙값은 18만 7천 달러로, 미국 중간 가계 총자산(19만 달러)과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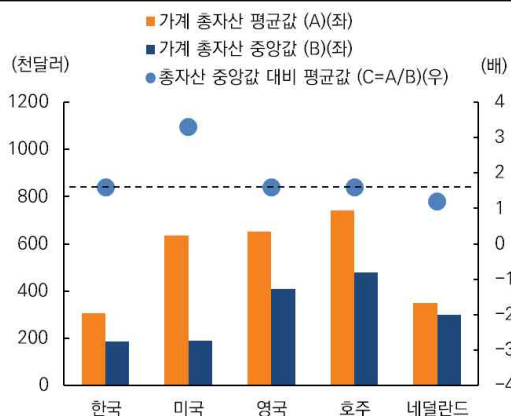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가계 간 자산 평등도는 영국 및 호주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보다는 자산분배가 평등한 편임.

– 국가 내 가계 자산의 분포를 보여주는 ‘총자산 중앙값 대비 평균값 배수’를 비교한 결과 미국이 3.3배로 가장 크고, 우리나라 및 영국, 호주는 1.6배로 비슷함.

· 중앙값 대비 평균값 배수가 클수록 자산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상위 20% 집단은 전체 순자산의 60.2%를 점유하여 영국(63.0%), 호주(62.0%) 상황과 비슷하나, 미국은 순자산 상위 10%집단이 전체 순자산의 74.5%를 점유해 순자산 상·하위 집단 간 자산 격차가 매우 큼.

<도표 1> 국가 별 가계 총자산



※ 자료: 한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해외 국가는 Badarinza 외(2016)을 참조해 작성

<도표 2>가계 순자산 분위별 순자산 점유율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	42.1	74.5	44.3	-	-
순자산 상위 20%의 점유율	60.2	-	63.0	62.0	-

※ 자료: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미국-SCF 2010, 영국-WAS 2010-2012, 호주-SIH(Survey of Income and Housing) 2009-2010

2. 금융자산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평균 41.7%이며, 금융자산 중 전세 보증금이 1/4 이상을 차지함.

-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평균 41.7%로 미국(30.2%), 영국(33.9%), 호주(36.5%)보다 높음.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평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금융자산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전세보증금은 평균적으로 가계 총자산의 11.1% 수준이며, 금융자산 중 1/4 이상이 전세 보증금인 셈.
 - 우리나라 가구 중 19.5%가 현재 전세로 거주하며,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은 67.6%임. (2018년 8월 한국감정원 집계자료)
 - ※ 전세보증금은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임대차 방식인 전세제도에서 파생한 것으로, 전세제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달 월세를 받지 않는 대신 초기에 큰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함.

<도표 3> 국가별 가계 자산 구성

(단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금융자산	41.7	30.2	33.9	36.5	41.7
예금	11.9	11.6	5.9	9.7	21.3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9.7	-	-	-	-
퇴직계좌 및 생명보험	-	13.3	25.1	23.2	16.8
주식	0.7	1.3	0.6	2.8	0.6
펀드	0.7	1.3	0.3	0.4	1.6
채권	0.0	0.5	1.1	0.2	0.6
거주주택 전세 보증금	11.1	-	-	-	-
기타	7.6	2.1	0.8	0.2	0.8
실물자산	58.3	69.8	66.1	63.5	58.3
자동차, 귀중품, 소비내구재 등	5.4	22.5	28.7	10.5	11.1
거주주택	37.8	40.6	34.6	42.5	43.3
거주주택 외 부동산	13.5	3.2	2.8	7.9	2.2
개인 사업자산(Private Business)	0.7	3.5	-	2.5	1.7
기타(계약금 및 중도금)	0.9	-	-	-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2017, 해외국가-Badarinza 외(2016)

※ 각 가계 별 자산 비중의 평균값임. - 는 해당 분류 없음을 의미함.

※ 금융자산 중 기타는 각국 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임차권, 신탁계좌, 빌려준 돈, 소송으로 인한 수입, 자녀계좌, 자녀 신탁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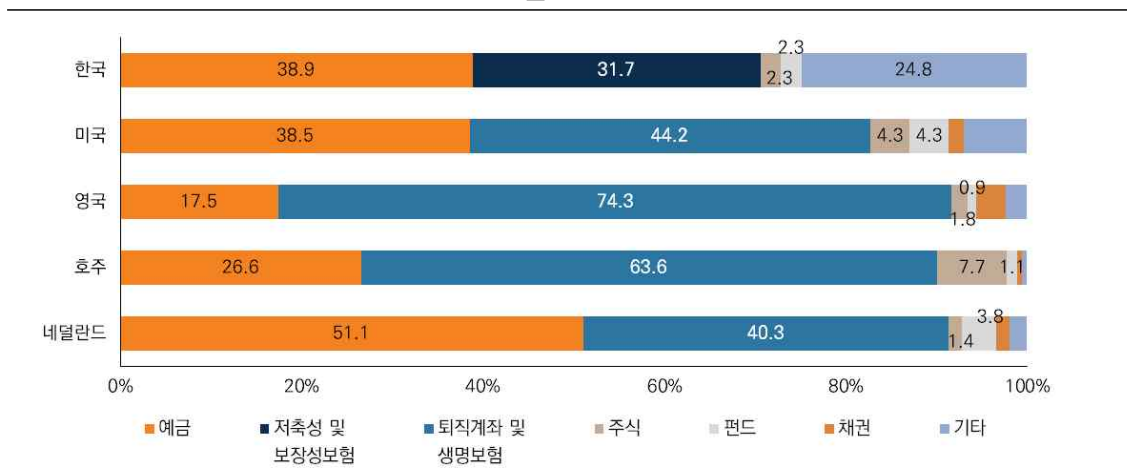
◎ 금융자산은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금과 보험 위주로 운용함.

- 거주주택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8.9%로 네덜란드(51.1%) 다음으로 높음.
- 가계 금융자산 중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비중은 평균 31.7%로 ‘예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보험종류별 수입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개인보험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는 특별계정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약 4배 규모임.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중 약 80%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은 소멸성 보장보험을 제외한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종신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함.

◎ 우리나라 가계는 미국 가계보다 위험회피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며, 주식형 자산 투자에 소극적임.

-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펀드 비중은 각각 2.3%며, 이는 미국(각각 4.3%), 호주(주식 7.1%, 펀드 1.1%)에 비해 낮은 편임.
 -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 중 주식과 펀드를 합한 비중은 평균 1.4%로, 미국의 0.5배, 호주의 0.4배 수준에 불과함. ※ <도표3> 참조
- 우리나라 가계는 미국 가계보다 위험회피적인 투자성향을 보임.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2017)의 한·미 펀드투자자 비교 결과
 - : 한국 펀드투자자는 위험회피적인 투자성향이 지배적임.(안정형 20%, 안정추구형 43%)
 - : 미국 펀드투자자 33%가 평균이상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함. 안정추구형은 20%에 불과

<도표 4> 국가별 가계 금융자산 구성



※ 자료: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2017, 해외국가-Badarinza 외(2016) 재구성
 ※ 한국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거주주택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을 100%로 하여 비중 산출

3. 실물자산

◎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51.3%로 5개국 중 가장 높음.

- 실물자산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 실물자산 비중은 평균 58.3%로 비교국에 비해 그 비중이 오히려 낮음. ※ <도표3> 참조
- 그러나 실물자산 중 부동산(거주주택 + 거주주택 외 부동산)만 따로 떼어 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남.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은 51.3%로 비교국 중 가장 높음.
※ 각국 가계 총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거주주택 +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 : 한국(51.3%), 미국(43.8%), 영국(37.4%), 호주(50.4%), 네덜란드(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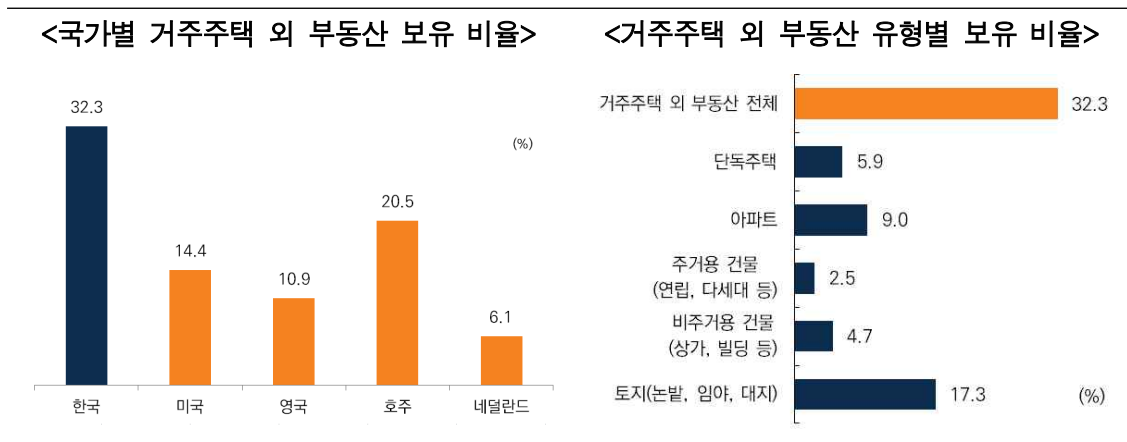
◎ 자동차, 귀중품, 소비내구재 등 동산(動産) 비중은 5.4%로 5개국 중 가장 낮음.

- 가계 총자산 중 동산 비중은 부동산 비중과 반대여서 영국이 28.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미국(22.5%), 네덜란드(11.1%), 호주(10.5%), 한국(5.4%) 순임.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 총자산 중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이 높음.

- 가계 총자산 중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평균 13.5% 로 4개국 평균의 3.3배 수준임.
※ 각국 가계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 : 한국(13.5%), 미국(3.2%), 영국(2.8%), 호주(7.9%), 네덜란드(2.2%)
- 전체 가계 중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 비율을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 열 가구 중 세 가구 이상이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32.3%)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음.
- 거주주택 외 부동산 유형별로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1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파트(9%), 단독주택(5.9%) 순임.

<도표 5> 거주주택 외 부동산 보유 비율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4. 은퇴자산

◎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 비중은 24.1%로 미국 가계의 은퇴자산 비중(41.5%)에 비하면 부족한 편임.

–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 비중을 산출하고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금융감독원의 연금 집계 자료를 결합해 새롭게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을 구성함.

※ 본 리포트는 가계가 은퇴 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저축성 금융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정의함. DC형 퇴직연금 및 IRP 보유액(퇴직계좌)과 개인연금(세계 적격 및 비적격 연금)이 포함됨. 미국 SCF자료에서 ‘퇴직계좌’, ‘생명보험’을 은퇴자산으로 분류함.

※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퇴직계좌를 집계하지 않고, 개인연금은 별도 구분 없이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과 ‘펀드’에 포함해 집계하고 있음. 이에 새로이 은퇴자산 비중을 산출하고자 금융감독원 집계를 바탕으로 가계 금융자산 중 퇴직계좌와 개인연금의 비중을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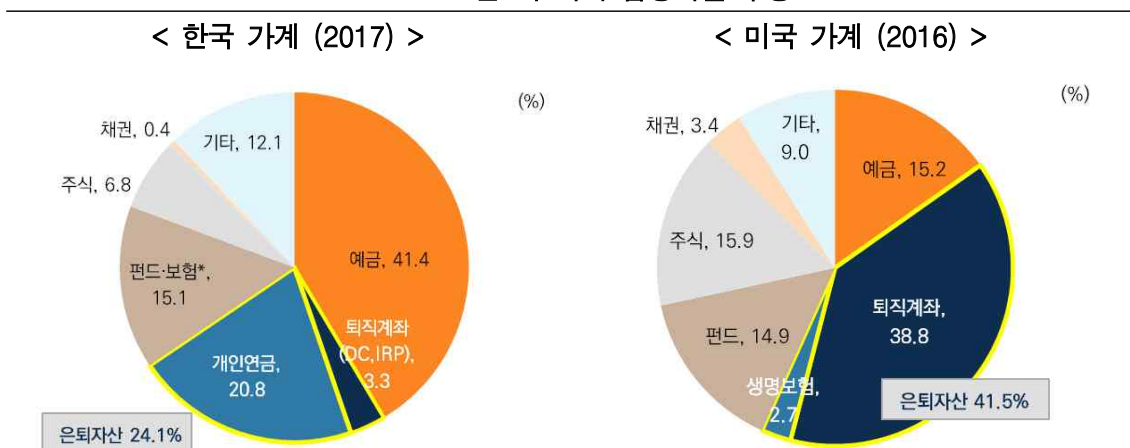
· 2017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149.8조원 중 DC, IRP는 약 51.4조원(34.3%)임.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모집단 가구 수(약 1946만 가구)로 나눈 값을 가계 금융자산 평균액에 더하여 새로 금융자산 구성 비중을 산출함.

· 개인연금은 321.9조원(2017.6월말 기준)으로, 앞서 퇴직계좌 자산을 더한 가계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8% 규모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류 상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31.5%)’과 ‘펀드(4.4%)’의 일부가 개인연금에 해당됨.

– 퇴직계좌(DC 및 IRP) 자산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가계 금융자산의 3.3%, 개인연금은 20.8%를 차지해 전체 은퇴자산 비중은 약 24.1%임.

–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 41.5%(퇴직계좌 38.8%+ 생명보험 2.7%)가 은퇴자산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자산 비중은 아직 부족한 수준임.

<도표 6> 한-미 가계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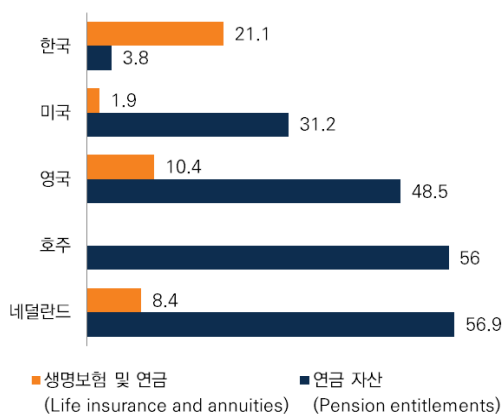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 금융감독원 집계
 ※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 기준
 ※ 펀드·보험은 한국 가계의 펀드,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중 개인연금 분을 제외한 비중임.

※ 자료: Survey of Consumer Finance(2016)

◎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자산은 다른 나라와 달리 퇴직연금보다는 생명보험 및 연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도표 6>은 가계 자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한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인데, 이를 보면, 가계 금융자산 중 퇴직계좌(DC 및 IRP) 비중은 3.3%이나, 개인연금(세계 적격 연금보험·신탁·펀드 및 세계 비적격 연금)은 20.8%로 그보다 약 6.3배 많음.
-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 국민계정을 활용한 OECD fact book 자료를 추가로 살펴봄.
 - ※ OECD fact book 자료는 각국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구성을 살펴 본 것으로 국민계정 등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총량 기준의 자산구성을 보여줌.
 - ※ OECD fact book의 '연금자산(Pension entitlement)'은 고용주 및 고용주가 설계한 연금기금에서 연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퇴직금 및 DB, DC형 퇴직계좌를 포함함.
-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중 퇴직연금('연금자산', pension entitlement) 비중은 3.8%에 불과하지만, '생명보험 및 연금' 비중은 21.1%에 달함.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네 나라는 대체로 생명보험 및 연금 비중이 낮고 퇴직연금 비중이 높음. 우리나라는 은퇴자산 구성이 선진 4개국과 상반됨.
- 그 이유는 각국의 사적연금 제도와 연금 가입률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가입률이 높을수록 가계 금융자산 중 퇴직연금 비중이 높음.
 - 퇴직연금이 의무화된 호주와 네덜란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미국과 영국의 자율적 퇴직연금 가입률도 각각 40.8%, 30%로 높음.
 -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2005년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음. 아직 생산가능인구의 17.1%만 가입한 상황임. 향후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가계 은퇴자산 비중이 높아질 여지가 있음.

<도표 7> 가계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 비중 <도표 8> 사적연금 가입률(15-64세 인구 대상)



	(준)의무 연금 (Mandatory/Quasi-mandatory)	자율 연금	
		퇴직 (occupational)	개인 (personal)
한국	17.1	×	24.0
미국	×	40.8	19.3
영국	×	30.0	11.1
호주	75.7	×	-
네덜란드	88.0	×	28.3

※ 자료: OECD factbook 2015-2016
 ※ 각국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함.
 ※ 호주의 '생명보험 및 연금' 비중 자료는 미집계
 ※ 총량 기준 자산 구성 비중 산출

※ 자료: OECD Pension at a Glance 2015, 2017
 ※ 영국은 2013년 기준. 나머지는 2016년 기준
 ※ - 는 집계 안됨. x 는 해당사항 없음.
 ※ 네덜란드의 경우 준의무적 제도로, 정부 강제는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대부분 노동자가 가입함.

◎ 우리나라 가계는 퇴직계좌 운용과 관리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39.4%는 퇴직계좌를 운용할 때 무조건 원금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원금손실을 감수하며 시장수익률(주가지수)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는 4.7%에 불과함.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48.8%는 가끔 수익률과 적립금을 확인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운용현황에 별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11.8%에 이룸.

※ 중산층 자산관리 설문조사 (한국경제신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공동 기획)

· 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임금근로자 1,021명

· 시기 및 방법 : 2018년 7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은퇴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퇴직연금제도가 확대된다면 우리나라도 선진 4개국의 흐름에 따라 각 가계의 퇴직계좌(DC 및 IRP)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각 가계는 자신의 퇴직계좌 운용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Ⅲ. 결론 및 시사점

●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가계 총자산은 비교국 대비 적은 편이나 가계 간 자산 평등도는 비교적 양호함.
- ② 다른 나라보다 가계 자산 구성과 운용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음.
 -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1.3%로 비교국 중 가장 높음.
 -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주택구입의 대기자금 성격인 전세보증금이 금융자산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③ 금융자산 운용은 안전자산 위주이며, 주식형 자산 투자에 소극적임.
 - 가계 금융자산 중 예금 및 저축성 보험이 70% 이상을 차지함.
 -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및 펀드 비중이 낮은 편이며, 안정지향적인 투자성향을 보임.
- ④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한 편이며, 은퇴자산 구성과 운용방식이 비교국과 상이함.
 - 가계 금융자산 중 은퇴자산 비중은 24.1%로 양적으로 부족함.
 - 은퇴자산이 퇴직연금보다는 생명보험 및 연금 위주로 구성되어 다른 나라와 상반됨.
 - 퇴직연금을 안정지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에 소홀함.

●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①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부족하며, ② 안전자산 위주의 구성으로 자산의 성장 잠재력이 부족함. 또한 ③ 은퇴자산이 충분치 못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극복이 어려움.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 및 운용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가계 자산 배분과 운용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시장 충격이나 금리 상승과 같은 문제 발생 시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야기할 수 있음.
- 안전자산 위주의 금융자산 운용은 점차 자산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물가상승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경우 자산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됨.
- 현재와 같이 은퇴자산이 부족하고 은퇴자산 운용과 관리에 소홀할 경우, 자산보다 오래 사는 장수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여 노년에 빈곤해질 우려가 있음. 노년층의 빈곤화는 개별 가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부담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큼.

● 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충분한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관리해야 함.

<끝>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집중투지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공적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低1高 시대'를 맞아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데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은퇴콘텐츠 개발 및 연구, 전문적인 은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를 통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은퇴리포트 지난호

... 이전 생략 ...

- [25] SF영화 '마션(Martian)'에서 찾은 100세 은퇴자의 생존법, 2016.3
- [26] 노후자산관리, 장수의 이점을 살려라, 2016.5
- [27] 연금부채를 연계한 DB형 퇴직연금 자산배분전략, 2016.7
- [28]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얻는 개인연금 자산관리 아이디어, 2016.8
- [29] 100세 시대 은퇴재무설계, 이제는 소득배분이 필요하다, 2016.9
- [30] 노벨경제학자 3인에게 배우는 은퇴재무설계, 2016.11
- [31] '은퇴자금 승수'로 알아보는 나의 은퇴자금 계산법, 2017.1
- [32]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2017.3
- [33] 노후자금 인출의 숨겨진 위험 시퀀스리스크, 2017.5
- [34]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배우는 노후자금 인출전략, 2017.10
- [35]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2018.2
- [36]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2018.4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은퇴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제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